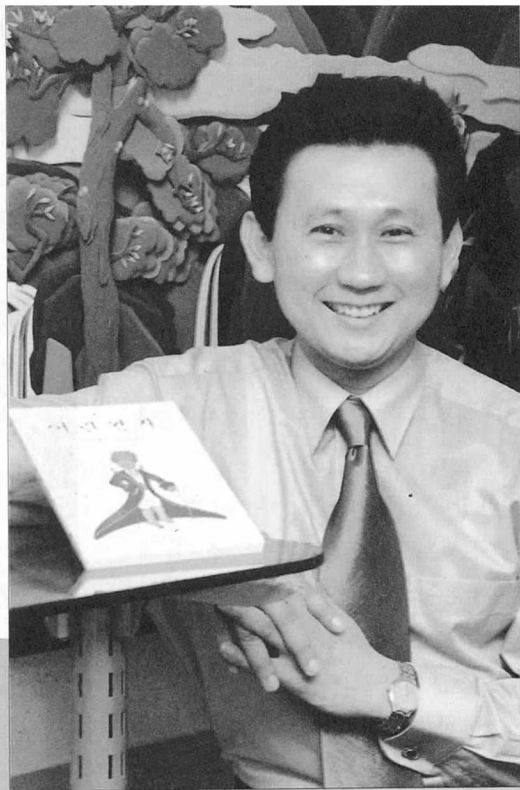


# 흔탁한 세상 견디게 하는 내 영혼의 안식처

현동훈 변호사가 뽑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욕심으로 마음이 산란할 때 이 책을 읽으면 순수했던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소중한 것들을 새삼 깨우쳐줍니다. 어찌 보면 어린 왕자는 우리 가슴속에 꼭꼭 숨어 있는 깨끗한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육법전서와 만화책이 빼곡한 서가에서 현동훈 변호사(40)가 뽑아든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였다. 인간의 정서가 배제된 엄밀한 논리의 세계에서 사는 법률가이기에 언뜻 엉뚱하게 보인다.

“이 책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에게서 선물받았습니다. 거짓없는 순수한 어린 왕자의 마음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도 곁에 두고 가끔 이 책을 펼쳐보면 그때의 감성이 되살아납니다. 마음이 흠어지거나 사욕이 생길 때 읽으면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읽히고 싶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등의 단체에서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기증하기도 했다. 어릴 적의 순수했던 감동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문제아로 낙인찍힌 청소년들이 이 책으로부터 감화받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현변호사는 못말리는 만화마니아다. 그가 만화와 맺은 인연은 다섯 살 때부터 시작된다. 그때 부친으로부터 선물받은 《만화 서유기》를 통해 한글을 다 깨우쳤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반년간이나 학교를 빼먹을 정도로 만화에 미쳐 살았다. 심지어 사법시험 기간에도 신림동 고시촌 만화가게를 들락거릴 정도였다. 그의 이런 만화사랑이 딱딱한 법과 만나 <현동훈 변호사의 만화법률 시리즈>인 《작은 상식 큰 권리》와 《변호사 없이 소송하기》(더난출판사)로 이어졌다.

“사법 연수원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문의 법지식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다 만화를 생각해냈습니다. 아직 법이 멀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을 조금이나마 깨치고 싶었습니다.”

이제 법은 ‘전문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해 생활법률잡지 월간 《로로(Low-Law)》를 창간했고 인터넷에 생활법률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앞으로 법률드라마, 법정영화 등도 구상중이다. 《어린 왕자》에서 배운 순수한 감동은 법과 대중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 박천홍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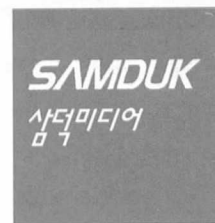
## 열린 마당

### BEST를 고집하는 편집자·편집디자이너

꿈이 있는 책, 아름다운 책, 哲學이 있는 책,  
어머니 가슴처럼 따뜻한 책을  
만들고자 하는 召命感에 불타는 사람

- 학습백과 편집자 0명 / 학습백과 편집디자이너 0명.
- 남녀 / 대졸이상 / 경력3년이상 / 나이제한 없음.  
편집자는 영어·일어·해독자 우대.  
편집디자이너는 맥킨토시-일러스트·포토샵·퀵 능숙한 사람.
- 이력서·사신·자기소개서 지참 내사 바람.
- 1999년 10월 20일까지.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7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사담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7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인쇄·제본공장 : 465-4707(代)